

교수자 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개발 모델

김은희[†] · 변호승^{††}

요 약

그 동안 플립러닝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들의 플립러닝 과목 개발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CTL과 같은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플립러닝강좌 개발 컨설팅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모델안을 개발하여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최종 ‘수업코칭에 기반한 플립러닝강좌 모델’을 개발하였다. 총 8단계 모델의 1단계는 수업 개발사항 검토, 2단계는 수업 오리엔테이션, 3단계는 플립러닝 운영, 4단계는 전문가 수업분석, 5단계는 플립러닝 수업코칭 및 수업개선 모임, 6단계는 플립러닝 운영, 7단계는 교수자 성찰, 8단계는 환류 및 보완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서는 플립러닝을 개발하는 교수자에게 수업의 개선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안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수업의 질적 제고가 가능하다.

주제어 : 수업코칭, 수업컨설팅, 플립러닝 컨설팅, 플립러닝 컨설팅 모델, 플립러닝강좌 개발 모델, 수업개선

Development of flipped learning course model based on instructor coaching

EunHee Kim[†] · HoSeung Byun^{††}

ABSTRACT

There has been a lot of interest in flipped learning, but lacked practical research to support the faculty developing flipped learning course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nsulting model for developing a flipped learning course that can be practically used by institutions such as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that support faculty teach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instruction. A ‘Coaching based on flip learning course development consulting model’ was deriv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feedback. The 8-step model is as follows: 1) survey of class development, 2) course orientation, 3) flipped learning, 4) expert class analysis, 5) flipped learning coaching, 6) flipped learning operation, 7) instructor reflection, and 8) feedback and revi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provide professional and practical guide systematically, and also help to improve quality of lesson.

Keywords : instructional coaching, instructional consulting, flipped learning consulting model, flipped learning course model, course improvement

[†] 정 회 원: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스마트교육센터 사업 총괄

^{††} 정 회 원: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8년 5월 1일, 심사완료: 2018년 7월 4일, 게재확정: 2018년 7월 9일

1. 서론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세계화의 흐름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속, 확대되면서 최근 대학의 수업방법 혁신 동향은 매우 적극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수업방식의 변화를 대학이 선제적으로 수용, 적용하면서 수업방법 변화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혁신선도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총 100억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혁신적인 수업방법인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6]. 플립러닝은 2007년 경 미국의 고등학교 화학 교사인 Bergmann과 Sams에 의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최근 국내외 대학에서 교육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38][25][35][2]. 또한,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인재역량 필수요소인 4C로 일컬어지는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창의력(creativity),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협업능력(collaboration)이 강조되면서 교육혁신의 필요성과 창의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이 부각되어 플립러닝은 가장 주목받는 미래형 수업모델로 자리잡고 있다[11][17][36].

그동안 플립러닝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 대부분은 이론적 검토 및 소개[24][29][26], 효과성 연구[2][17][5], 수업설계 모델[32][4][31], 수업설계 방법[16][3], 사례 연구[12][13][27]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플립러닝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많은 대학들이 플립러닝 적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특히 대학의 경우 2014년 이후 플립러닝 관련 연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10].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학의 교수자들은 수업 개선을 위해 수업 전반에 대한 수업컨설팅과 모니터링 지원을 더 필요로 하며[7][34], 사전학습활동 자료 및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9]. 왜냐하면, 수업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공, 모니터링은 수업 개선 및 질 관리를 위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28][19]. 그러므로 대학 차원에서 수업의 질 관리가 수반된 플립러닝강좌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에

대하여 수업분석과 수업컨설팅이 제공됨으로써 수업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연구사례가 제시된바 있다[15]. 반면, 플립러닝의 설계 및 실행 전략에 따라 수업의 효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적용된 수업모델 및 지원 방식에 따라 기대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보고되었다[21].

이렇듯 대학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플립러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플립러닝강좌의 질 관리 및 교수자의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컨설팅 관련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플립러닝 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인 수업분석을 기반으로 한 수업컨설팅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33][22], 사전학습의 수업자료 재설계를 위한 동영상 제작 및 매체 제작 개발에 집중된 플립러닝 컨설팅의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대학 교수자들의 플립러닝강좌 개발 시, 플립러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여 수업설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플립러닝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수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모니터링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22][34]. 이를 위해 수업의 개선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도움과 안내,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CTL과 같은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업코칭’ 개념을 적용하여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 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개발 모델은 무엇인가?

둘째, 교수자 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개발 모델 적용 결과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플립러닝 수업모형 및 절차

플립러닝은 학습자가 수업에서 보다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방법 중 하나로

기존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 전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의 플립러닝 수업 형태는 기본적으로 강의실 밖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고, 강의실 안에서는 과제 및 토론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수업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자 중심의 내용전달 위주 학습은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강의실 수업에서는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학습자 중심의 수업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수자가 미리 녹화한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개별 심화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플립러닝 수업 환경은 학습을 촉진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24].

대학에서의 플립러닝 수업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형태로 실천되며 강의실 수업 이전의 사전 학습과 강의실에서의 학습은 다음의 <표 1>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표 1> 플립러닝 수업모형

구분	사전 학습	강의실 학습
학습자	- 지식 소비자	- 지식 생산자
교수자	- 자료 생산자 - 조직적 지원 전략수립	- 학습 안내자 - 학습 보조자
수업	성격 - 학생 주도적 학습 - 수렴적 학습	- 학생 주도적 학습 - 수렴 및 확산적 학습
	목표 - 교실 수업을 위한 기본 지식과 개념습득	- 지식의 내면화 - 진정한 학습
	학습방법 - 멀티미디어 자료 중심의 프로그램학습 - 이러닝시스템 활용	- 학습자의 활동 중심 학습(협동, 의사소통, 참여)

플립러닝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원활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자 및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자는 사전 학습 시에 교수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기본 지식과 개념을 습득하고 강의실 수업에서는 수렴 및 확산적 학습을 수행하는 지식 생산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전통적인 수업방식과는 달리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모형 및 절차에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융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업 운영과 개발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안내와 체계적

인 플립러닝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전 학습 수업자료를 제시할 시, 교수자가 직접 동영상을 만드는 일을 포함하여 이러닝시스템에 탑재하거나, 학습자들의 학습현황 확인 및 학습이력을 관리하는 등의 일은 전문적인 교수학습지원기관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 또한 플립러닝 수업은 교수설계 및 개발, 수행, 평가에 대한 내용 전반을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하므로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32].

2.2 수업컨설팅 개념 및 모델

수업컨설팅 초기의 개념은 학습자의 학습문제 해결 및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수자가 행동 수정을 해나가는 것이라 정의되었다[39]. 그러나 차츰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수업컨설팅은 수업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및 조언, 처방, 수업개선을 위한 문제해결 과정, 교사의 전문성 신장 측면으로 그 해당 범위가 넓혀졌다. 이상수는 수업컨설팅은 ‘학습자의 학습개선에 초점을 두고 수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을 체계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수업 전문가와 교수자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18], 조벽은 수업컨설팅은 ‘수업과 관련된 교수자의 다양한 활동을 전문가 혹은 동료 교수자들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상담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하였다[30]. 이처럼 수업컨설팅에 대한 기본 개념은 전문가, 동료 교수, 수업 코치, 자문가 등이 투입되어 총체적으로 수업 개선을 위해 협력적 조언 및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관점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수업코칭’ 개념은 대학에서의 플립러닝강좌 개발을 지원하는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수자와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수평적인 상호작용 관계 하에서 수업의 개선을 위해 조언 및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8][23]. 이러한 ‘수업코칭’ 방식은 플립러닝강좌 개발을 위해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수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기존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 기반의

일회성 수업컨설팅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2>는 기존 연구들의 주요 수업컨설팅 모델 및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수업컨설팅 모델은 컨설턴트와 교수자가 수업컨설팅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제공한다.

<표 2> 수업컨설팅 모델 및 절차

학자	수업컨설팅 모델 및 절차
이상수 (2010), 수행공학을 적용한 수업컨설팅 모델	
홍성연 (2010), 연구자에 따른 수업컨설팅의 절차 및 모델	
이종미, 장경원 (2015), 교사 경험 반영 수업컨설팅 모델	
최정빈, 강승찬 (2016), 플립러닝 컨설팅 절차 및 모델	



Trottier (2012), 컨설팅-창발모델

<표 2>의 학자별로 제시한 수업컨설팅 모델에 대한 도출 전략 및 모델에 대한 단계별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행공학을 적용한 수업컨설팅 모델[18]의 경우는 학습자의 학습개선에 초점을 두고 수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공학을 적용한 것으로 체제적 관점에서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 맥락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1단계 협력관계형성, 2단계 수행분석, 3단계 원인분석, 4단계 개입안 설계 및 실행, 5단계 협력적 평가 5단계로 수업컨설팅 모델을 제시하여 수업진문가와 교수자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연구자에 따른 수업컨설팅의 절차 및 모델[37]에서는 메사추세츠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의 교육학과에서 개발된 교수컨설팅, Erickson 및 Erickson의 교수컨설팅[40], Hicks의 수업컨설팅[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업컨설팅 절차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컨설팅이 되기 위해서 컨설팅 결과가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교사 경험 반영 수업컨설팅 모델[20]에서는 수업컨설팅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한 수업컨설팅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1단계 편안한 분위기형성, 2단계 신뢰감 형성, 3단계 의뢰과제 명확화, 4단계 긍정비전 수립, 5단계 해결방안 도출, 6단계 실천계획 수립, 7단계 실천결과 확인 및 피드백으로 총 7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

플립러닝 컨설팅 절차 및 모델[33]의 경우는 플립러닝 수업사례를 통해 도출된 수업요소들을 기반으로 플립러닝 수업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목적

이 있으며, 크게 사전준비 단계, 수업수행단계, 사후점검단계 3단계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국외 사례의 경우로, Trottier의 컨설팅 모델 개발 방법론 중의 하나인 ‘창발모델’은 현재에 집중하여 실시간으로 발견된 사항을 구체화시켜 오픈하고 진화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컨설턴트는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어느 정도의 예측과 패턴의 발견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일정 부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42]. 이 모델은 교육적인 맥락에서도 적용 가능한 컨설팅 모델로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업의 장애 요소를 파악하여 유사한 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예측 및 결정하여 수업의 질을 개선해 나가면 된다.

이와 같은 수업컨설팅 모델 및 절차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일부 주차가 아닌 1학기 분량의 수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 맥락적 요인을 고려하여 대학에서의 플립러닝 강좌 모델을 도출하였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업의 장애요소를 줄이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업코칭’ 개념을 적용한 본 연구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에서는 교수자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플립러닝 수업컨설팅 모델에서 중요한 사전학습 단계, 강의실 수업활동 연계-수업수행 단계, 사후학습 단계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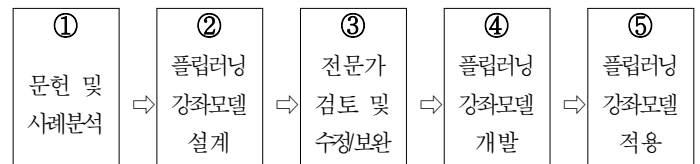
3.1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교수자의 성공적인 플립러닝강좌 개발을 위해 효과적인 플립러닝 질 관리 장치로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대학에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플립러닝강좌 개발 시 플립러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여 수업설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플립러닝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수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은 Trottier의 컨설팅 모델 개발 방법론[42]에 근거하여 ‘전문가’ 역할에 ‘수업컨설턴트’ 개념과 ‘관리자’ 역할에 ‘수업코치’ 개념을 적용시켰다. 대학에서 ‘수업코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는 대부분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CTL과 같은 기관의 관리자 및 전문 연구원이 적합하고, ‘수업컨설턴트’는 교수자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상황과 그 상황에 따른 진단 및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수설계 및 수업컨설팅 전문가가 적합하다.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은 다음의 <표 3>과 같은 총 5단계의 연구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다.

<표 3> 연구 절차



첫째, 문헌 및 대학 사례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대학에서 수행된 기존의 플립러닝강좌 개발 절차, 수업컨설팅 및 컨설팅 모델 관련 연구와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모델을 분석하였다. 둘째, 플립러닝과 관련된 수업 코칭, 수업 컨설팅, 컨설팅 모델 전반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이와 관련된 모델들을 종합 분석하여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을 설계하였다. 셋째, 설계된 플립러닝강좌 모델에 대해서 전문가 타당화 검토 과정을 수행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표 4>와 같이 20년 이상 경력의 교수설계 및 수업컨설팅, 이러닝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졌다. 개발된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한 전문가는 실제 플립러닝 운영 강좌의 플립러닝 수업컨설팅을 수행하였다. 넷째, 전문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C대학에서 플립러닝강좌 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17년도 1학기, 2학기 총 15과목의 교과목에 적용되었다. 개발된 모델 적용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단계별로 절차적이고 방법적인 부분을 일부 개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 강좌 모델’은 총 8단계로 수행되며, 1단계는 수업 개발사항 검토, 2단계는 수업 오리엔테이션, 3단계는 플립러닝 운영(수업 1/3선), 4단계는 전문가 수업분석, 5단계는 플립러닝 수업코칭 및 수업개선 모임, 6단계는 플립러닝 운영(수업 2/3선), 7단계는 교수자 성찰(수업 3/3선), 8단계는 환류 및 보완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의 <표 4>는 ‘수업코칭 중심의 플립러닝강좌 개발 컨설팅’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경력 및 관련 전문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연구 참여 전문가의 경력 및 분야

구분	경력	학력	전문분야
전문가 A	20년	박사	교수설계, 이러닝, 수업컨설팅, 모형개발
전문가 B	21년	박사	교수설계, 이러닝, 수업컨설팅, 모형개발
전문가 C	25년	박사	교수설계, 이러닝, 수업컨설팅, 모형개발

3.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대학에서 플립러닝강좌 개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7년도 1학기 8과목, 2학기 7과목 총 15과목을 운영하였고, 수강생 수는 총 439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플립러닝강좌 개발 교과목(총 15과목)

구분	교과목명	수강생수
'17-01 8과목	시스템시뮬레이션	15
	데이터베이스시스템	35
	고고학개론	32
	자료구조	43
	고분자공학	23
	현대영미문학	16
	운영체제	47
'17-02 7과목	열역학 I	53
	재료역학2	57
	특수계측주거	20
	수리학II 및 실험	42
	창조적 사고의 기술	26
	스마트자동차 실험	10
교육공학	8	
합계	영미소설의 이해	12
	15과목	439명

3.3 연구 도구 및 자료 분석

총 15과목의 플립러닝강좌 개발 교수자를 대상으로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을 적용하여 1학기 동안 운영한 수업 내용에 대해 수업단계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점 척도 기준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학기별 평균값 및 기타 통계값을 산출하였다. 설문 항목은 사전학습 단계 5문항, 강의실 활동 단계 11문항, 플립러닝 인식 관련 2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업단계의 구성 요소별로 교수자의 플립러닝 수업 분석 내용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플립러닝 수업 단계별 교수자 설문 결과

수업 단계	구성 요소	플립러닝 수업 분석 내용	1학기 평균	2학기 평균
사전 학습	내용 설계 (동영상 / 강의 자료)	사전학습 내용은 학습자가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4.38	4.57
		사전학습 내용은 학습자가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유발 하도록 구성되었나?	4.13	4.29
		사전학습 내용이 강의실 활동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가?	4.13	4.50
		사전학습 내용의 분량(20분 내외)은 적절한가?	3.38	3.29
		사전학습 내용은 학습 이해도 증진 및 강의실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4.63	4.29
		사전 학습 점검	사전학습 여부를 점검 혹은 사전학습 정도를 평가하는가?	3.38
강의실 활동	수업 활동 설계	사전학습에서 생긴 질문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가?	4.13	3.86
		사전학습을 충실히 하면 원 활히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활동인가?	4.25	4.29
		교과목 특성 및 학습목표 달성도 연계성이 있는가?	4.38	4.43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방법을 사용하였는가?	4.25	4.29
		수업 활동이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는가?	4.25	4.43

상호 작용	수업 활동이 학습자의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하는가?	4.13	4.29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가?	3.63	4.00
교수자 지원	수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는가?	4.00	4.00
	학습자에게 다양한 아이디어(창의성)를 생각해내도록 지원했는가?	3.75	3.71
	학습자가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 등이 제공되었나?	4.13	3.86
플립러닝 인식	강의식을 탈피한 플립러닝 수업방법이 학습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88	4.00
	다른 수업에도 플립러닝 수업방법을 적용하고 싶으신가요?	3.88	3.86

각 설문 문항은 교수자가 1학기 동안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을 적용하여 운영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플립러닝 수업에 대해 분석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크게 사전학습과 강의실 활동 단계로 구분하였다.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수업의 내용설계 부분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였고, 강의실 활동 단계에서는 사전학습 점검, 수업활동 설계, 상호작용, 교수자 지원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 개발은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경험과 인식 및 플립러닝 수업분석 관련 도구를 연구한 선행연구 등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플립러닝강좌 개발 컨설팅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재구성하여 개발하였다[14][22].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각 학기별로 가장 높은 평균값은 ‘사전학습 내용은 학습 이해도 증진 및 강의실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의 항목에서 4.63이 도출되었고, ‘사전학습 내용은 학습자가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항목에서 4.57이 도출되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평균값은 2학기 동일한 결과로 ‘사전학습 내용의 분량은 적절한가?’의 항목에서 각각 3.38, 3.29로 도출되었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로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 전체적인 틀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 개발 절차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는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의 각 단계별 주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수자는 한 학기 동안 플립러닝강좌 개발 및 운영을 수행하며, 코치는 교수자가 성공적으로 플립러닝강좌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수업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컨설턴트는 플립러닝강좌를 개발함에 있어 수업 전인 사전학습에 대한 부분, 수업 중인 강의실 활동에 대한 부분, 수업 후인 사후학습에 대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한다.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의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업 개발사항 검토

수업개발사항 검토 단계에서 교수자는 플립러닝강좌 신청서와 주차별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수업코칭을 제공하는 코치는 교수자가 제출한 플립러닝 신청서와 주차별 세부 수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플립러닝강좌 개발 교과목으로 타당한 교과목인지 최종 검토 및 선정 후 이를 수업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에게 전달한다. 컨설턴트는 교수자의 주차별 수업계획서를 세부적

으로 검토하여 사전학습 설계 내용 및 강의실 수업활동 연계성, 수업 후 활동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주차별 수업계획서 검토서를 제공한다.

2) 수업 오리엔테이션

수업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교수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고, 코치는 플립러닝강좌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강좌 개발 지침을 안내한다. 사전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동영상 제작 방법 및 교육 인프라 소개, LMS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플립러닝 수업활동 설계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수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교육자료 및 사례가 포함된 플립러닝 교수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3) 플립러닝 운영(수업 1/3선)

플립러닝 운영(수업 1/3선) 단계에서 교수자는 제출한 플립러닝 주차별 계획서에 맞게 사전학습을 위한 강의 콘텐츠를 탑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의실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사후학습에 대한 과제 출제 및 평가, 피드백 활동을 수행한다. 코치는 플립러닝 운영이 1/3정도 이루어지는 시점에 LMS의 사전학습 수행 활동을 점검하고 플립러닝 강의실 활동과 수강생 피드백 점검을 위해 교수자, 학습자 동의하에 수업을 촬영한다. 녹화된 동영상은 컨설턴트에게 전달하고 컨설턴트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업관찰 및 수업분석을 수행한다.

4) 전문가 수업분석

전문가 수업분석 단계에서 교수자는 플립러닝 강좌 컨설팅을 받고 싶은 부분 즉, 본인의 수업 개선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출한다. 코치는 이를 기반으로 컨설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요구조사 내역이 포함된 1차 플립러닝 컨설팅 의뢰서를 컨설턴트에게 전달한다. 컨설턴트는 교과 특성 분석, 사전학습 자료설계 검토, 사전학습과 강의실 수업활동의 연계성, 강의실 수업활동 분석, 플립러닝에 활용된 강의실 활동의 주요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여 개선사항 및 기타의견을 작성 후 1차 플립러닝 컨설팅 평가서를 제공한다[22][35].

5) 플립러닝 수업코칭 및 수업개선 모임

플립러닝 수업코칭 및 수업개선 모임 단계에서 교수자는 4단계에서 제공받은 1차 플립러닝 컨설팅 평가서를 검토하고 수업개선 모임에 참여한다. 수업코칭 지원 및 플립러닝강좌 개발에 참여한 동료 교수들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하여 강좌 개발 시 어려웠던 부분, 발견된 문제점,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코치는 4단계 전문가 수업분석에서 도출된 1차 플립러닝 컨설팅 평가서를 기반으로 교수자들의 공통된 문제점, 수업 개선에 필요한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컨설팅 평가 결과 관련 질의응답을 수행한다. 또한, 남은 학기 동안 플립러닝강좌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평가서 결과를 근거로 제도 및 인적지원, 기술적 지원, 환경적 지원, 교육적 지원에 필요한 다각도의 강좌개발 지원 전략을 제공하여 교수자들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34]. 컨설턴트는 코치가 제공한 플립러닝 강좌 코칭 결과서를 검토한다.

6) 플립러닝 운영(수업 2/3선)

플립러닝 운영(수업 2/3선) 단계에서 교수자는 코치가 제공한 다양한 지원 전략과 수업분석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플립러닝 주차별 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 플립러닝 수업의 2/3선에 대한 사전학습을 위한 강의 콘텐츠를 탑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의실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사후학습에 대한 과제 출제 및 평가, 피드백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이에 대한 플립러닝 운영 중간보고서를 제출한다. 코치는 플립러닝 운영이 2/3정도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플립러닝강좌 개발을 지원하는 수업조교 좌담회를 실시한다. LMS의 교수학습 현황, 학습과정 운영 점검 및 교수자의 플립러닝 운영 중간보고서를 검토하여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수업조교와 수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좌담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강생 피드백을 수렴하고 학습자 태도 및 성취도,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수업코칭에 필요한 부분을 보강한다. 컨설턴트는 코치가 제공한 수업조교 좌담회 결과가 포함된 플립러닝 강좌 운영 중간보고서를 검토한다.

7) 교수자 성찰(수업 3/3선)

교수자 성찰(수업 3/3선) 단계에서 교수자는 플립러닝강좌 개발 운영을 마무리 하고 플립러닝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한 학기 수업에 대한 성찰지 역할을 하며 플립러닝강좌 개발을 통해 개선된 것과 추후 학기에 개선 예정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미개선된 부분이 있는 경우, 미개선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코치는 학기가 종료되기 3주전에 교수자 설문조사, 학습자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교수자, 학습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교수자의 플립러닝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2차 플립러닝 컨설팅 의뢰서를 컨설턴트에게 전달한다. 컨설턴트는 플립러닝강좌 개발의 전체 분석에 따른 운영방식 및 문제점 도출하고, 세부적으로 사전학습, 강의실 활동, 상호작용, 온-오프 연계전략, LMS 활용방안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컨설팅한다. 한편, 플립러닝 운영지원에 필요한 동영상 제작, 스마트 도구 활용, 학습자 참여 교수법 등을 제공하고, 플립러닝 운영 전반에 대한 교수자 역량을 검토한다. 수업 전 관련 요소인 학습 설계 역량, 학생 관리 역량 요소와 수업 중 관련 요소인 학생 활동 촉진 역량, 학생 수행 조절 역량, 교사 태도 역량, 의사소통 촉진 역량, 수업 후 관련 요소인 심화 학습 지원 역량, 학습 평가 관리 역량에 대해 검토한 후 2차 플립러닝 컨설팅 최종 평가서를 제공한다[1].

8) 환류 및 보완

환류 및 보완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교수자는 2차 플립러닝 컨설팅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차기 플립러닝강좌 개발에 필요한 개선사항 적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 코치는 한 학기 플립러닝강좌 개발 운영 경험 및 결과를 토대로 수업코칭에 필요한 플립러닝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플립러닝 컨설팅 도구를 개선한다.

위와 같이 총 8단계의 효과적인 플립러닝 질 관리 장치로서의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을 통해 대학의 CTL 기관에서 교수학습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수업코치)는 플립러닝강좌 컨설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

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공적인 수업코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이다.



[그림 2] 수업코칭에 기반한 플립러닝강좌 모델 (Coaching-based Flipped Learning Consulting Model, 이하 C-FLCM)

본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크게 8단계로 구성되며 전체적인 틀에서 수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교수자는 한 학기 동안 플립러닝강좌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코치는 이에 대한 자료검토 작업을 수행한다. 코치는 교수자가 성공적으로 플립러닝강좌를 개발 할 수 있도록 관련 단계마다 수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수업코칭과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한다. 컨설턴트는 플립러닝강좌를 개발함에 있어 크게 수업 전인 사전학습에 대한 설계 및 개발 부분, 수업 중인 강의실 활동에 대해 사전학습과 연계 부분, 수업 후인 사후학습에 대해 강의실 활동과 다음 차시의 사전학습 콘텐츠와의 연계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한다. 교수자는 수업분석 및 컨설팅과 병행된 수업코칭의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성찰일지 결과보고서를 통해 수업에서 개선된 부분과 개선이 되지 못했다면 미개선 사유를 작성하여 다음 수업에 상세하게 어떻게 반영하여 수업을 개선할 것인지를 기술한다. 총 8단계의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을 통해 교수자의 수업 경험이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연결돼 수업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선형적 절차가 아닌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환류 체계가 이루어지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

다음의 <표 7>은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의 단계별 각 주체별 주요 과업 및 산출물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단계별 주제별 주요 과업 산출물

단계	교수자	코치(CTL 관리자)	컨설턴트
① 수업 개발사항 검토	플립러닝 신청서 제출 주차별 수업계획서 제출	플립러닝 신청서 검토 주차별 수업계획서 검토	주차별 수업계획서 검토서
② 수업 오리엔테이션	교수자 오리엔테이션 참여	플립러닝 강좌개발 지침 안내 플립러닝 가이드라인 배포	
③ 플립러닝 운영 (수업 1/3선)	사전학습 강의콘텐츠 탑재 강의실 수업활동 연계 사후학습 과제/피드백/평가	플립러닝수업 강의 촬영 학습자 미니 인터뷰 (수강생 피드백)	교수자 플립러닝 수업관찰 학습자 플립러닝 수업관찰
④ 전문가 수업분석	플립러닝 컨설팅 관련 요구 사항 제출	LMS 교수-학습현황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플립러닝 컨설팅 요구조사 및 자료 수집 1차 플립러닝 컨설팅 의뢰서	1차 플립러닝 컨설팅 평가서 - 교과의 특성 분석 - 사전학습 자료설계 검토 - 사전학습과 강의실 수업활동의 연계성 - 강의실 수업활동 분석 - 플립러닝에 활용된 강의실 활동의 주요 특성 - 개선사항/ 기타의견 등
⑤ 플립러닝 수업코칭 (수업개선 모임)	교수자 수업개선 모임 참여 동료 교수자와 커뮤니티 형성	1차 플립러닝 컨설팅 평가서 기반의 수업코칭 플립러닝 강좌코칭 결과서	플립러닝 강좌코칭 결과서 검토
⑥ 플립러닝 운영 (수업 2/3선)	사전학습 강의콘텐츠 탑재 강의실 수업활동 연계 사후학습 과제/평가/피드백 플립러닝운영 중간보고서 제출	플립러닝 수업조교 좌담회 (학습과정 및 수강생 피드백) LMS 교수-학습현황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플립러닝 중간보고서 검토
⑦ 교수자 성찰 (수업 3/3선)	사전학습 강의콘텐츠 탑재 강의실 수업활동 연계 사후학습 과제/피드백/평가 플립러닝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 보고서(수업성찰지) - 개선사항 작성 - 개선예정 작성 - 미개선 사유 작성	교수자 설문조사 학습자 설문조사 2차 플립러닝 컨설팅 의뢰서	2차 플립러닝 컨설팅 최종보고서 - 플립러닝수업 운영 분석: 운영방식 및 문제점 도출 - 개선사항: 사전학습, 강의실 활동, 상호작용, 온-오프연계전략, LMS 활용방안 등 - 플립러닝 운영지원: 동영상제작, 스마트도구 활용, 학습자 참여 교수법 등 - 플립러닝운영 교수자 역량평가
⑧ 환류 및 보완	플립러닝 컨설팅 최종보고서 검토 차기 플립러닝강좌 개선적용	플립러닝 컨설팅 도구 개선 플립러닝 가이드라인 보완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플립러닝 질 관리 장치로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플립러닝강좌 개발은 플립러닝 수업운영을 포함한 전체적인 강좌 개발에서의 수업코칭 기반 컨설팅을 의미한다.

대학에서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의 전체적인 틀은 1단계 수업 개발사항 검토, 2단계 수업 오리엔테이션, 3단계 플립러닝 운영(수업 1/3선), 4단계 전문가 수업분석, 5단계 플립러닝 수업코칭 및 수업개선 모임, 6단계 플립러닝 운영(수업 2/3선), 7단계 교수자 성찰(수업 3/3선), 8단계 환류 및 보완으로 총 8단계이다.

교수자가 플립러닝강좌를 개발함에 있어 일반 강의에서의 전문가 수업관찰 및 수업분석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포함하여 ‘수업코칭’에 기반한 지속적인 안내와 플립러닝 컨설팅이 적용되는 부분이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관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수업코칭’ 개념으로서 대학의 CTL 기관에서 교수학습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원 혹은 관리자를 수업코칭 전문가로 투입시켜 수업을 하는 교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또한, 수업코칭 지원 시 한 주차 분량의 수업을 분석하여 일부를 컨설팅하는 개념이 아닌, 한 학기 분량의 강좌 전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수자가 수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플립러닝강좌 운영 종료 후 교수자의 플립러닝 수업 분석 내용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 설문조사 결과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은 사전학습 내용 구성 및 설계 시, ‘학습 이해도 증진 및 강의실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학습자가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의 2개 항목과 강의실 수업활동 설계 시, ‘교과목 특성 및 학습목표 달성과 연계성이 있는가’의 항목이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수업코칭에 기반한

플립러닝강좌 모델’ 적용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학습자의 수업 목표 달성에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 혁신모델로 플립러닝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은 교수자의 수업개선을 위한 교수능력을 길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에서 플립러닝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둘째, 교수자 설문조사 결과 낮게 평가된 부분은 사전학습 내용 구성 및 설계 시, ‘사전학습 내용의 분량은 적절한가?’ 항목과 강의실 수업활동 설계 시, ‘사전학습 여부를 점검 혹은 사전학습 정도를 평가하는가?’의 2개 항목이다.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사전학습용으로 활용된 대부분의 강의자료 콘텐츠는 기존에 개발된 KOCW(Korea OPen Course Ware)에 공개된 이러닝 콘텐츠로 1주차 분량의 콘텐츠 러닝 타임이 60분 ~ 75분 정도이고, 1차시 분량은 25분 ~ 30분 정도였다. 이는 플립러닝강좌 개발을 위한 수업코칭 시, 강의 콘텐츠는 15분 ~ 20분 내외로 개발할 것을 권장한 것과 상반되는 부분으로 기존 콘텐츠를 그대로 활용하다보니 이와 관련하여 낮게 평가된 것이다. 그리고, 사전학습 여부 점검 혹은 사전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은 것은 강의실 수업활동 시 진도를 고려하거나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 연구결과나 사례에서도 제시되었듯 학습자들이 플립러닝 수업에 거부감 없이 참여하고 학습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학습 콘텐츠를 학습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25]. 아울러, 플립러닝의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학습과 강의실 활동을 적절히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전학습 점검 및 평가를 위한 퀴즈와 질의응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이러한 선행연구 및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학습 콘텐츠는 적절한 분량과 단위로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플립러닝의 교수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업코칭 지원 시, 교수자가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지, 이행 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전문가 수업분석 단계에서 수업컨설팅트가 공통적인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교수자가 설문조사 결과 낮게 평가한 '사전학습 여부 점검 및 사전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부분이 미흡하였다'라는 사항과 일치하였다. 이와 관련, 사전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LMS를 활용하여 학습내용을 요약한 것이나 질문을 미리 올리게 하고, 올라온 질문을 강의실 활동에서 다른 학습자와 같이 풀어나가며 상호작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문제풀이에 대한 답변만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개념을 확장한 질문에 대해 답하고 이에 대해 다른 학습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토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동시에 학습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점수에 반영하거나 강제성을 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처럼 사전학습 대한 점검 및 평가는 플립러닝 강좌의 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넷째, 플립러닝강좌 모니터링 결과, 사전학습용으로 제시되는 강의자료 동영상과 강의실 수업활동의 수업내용 및 학습자료가 중복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를 위해 '수업코치'는 플립러닝 교과목 재설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수자 성찰 단계에서 교수자들이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을 통해 공통적으로 크게 개선된 부분은 학습자들의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강의 집중도, 참여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유는 매 주차별 수업 모니터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사전학습 강의 자료를 탑재하고, 강의 계획의 구체화로 인해 강의의 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미개선된 부분은 교수자 설문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낮게 평가된 사전학습 여부 점검 혹은 사전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부분이었다. 이유는 학습자들의 플립러닝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들어 이에 대한 부담을 느꼈고, 강의 일정 및 진도에 쫓기다 보니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설문 내용인 다음 수업을 위한 공통적 개선 예정 사항은 플립러닝강좌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사전학습과 연계된 강의실 활동의 토론 및 질의응답

활성화, 사전학습 점검 및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주차별 퀴즈 개발, 요약발표를 하게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겠다는 부분이었다. 이처럼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은 플립러닝강좌의 질 관리 장치로 교수자의 성찰 활동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을 정교화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플립러닝강좌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전학습 자료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온·오프라인 학습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학습자의 특성과 과제 유형에 따라 적절한 교수 전략을 구현해야 하므로 기존의 수업보다 더 다양한 교수자 역량이 요구된다[1]. 이처럼 교수자 역량 진단 결과에 기초한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을 역량 맞춤형 코칭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하는 바이다. 교수자 역량 중심의 플립러닝 강좌 모델을 개발하면 더 적합하고 맞춤형 수업코칭 및 컨설팅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서는 플립러닝을 개발하는 교수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도움과 안내,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업코칭에 기반한 대학의 플립러닝강좌 모델'을 통해 플립러닝 강좌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수능력을 길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규식, 이동훈, 송해덕 (2016).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 수업 운영을 위한 교사 역량 지표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33(2), 181-207.
- [2] 김남익, 전보애, 최정임 (2014). 대학에서의 거꾸로 학습 (Flipped learning) 사례 설계 및 효과성 연구: 학습동기와 자아효능감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30(3), 467-492.
- [3] 김백희 (2014).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 을 기반으로 한 역할 교체식 토의

- 수업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37, 141-166.
- [4] 김보경 (2014). 교직수업을 위한 역진행 수업 모형 개발. **교육종합연구**, 12(2), 25-56.
- [5] 김윤영, 정현미 (2017). 수업기본원리를 적용한 플립드 러닝의 설계 및 효과. **교육공학연구**, 33(2), 295-326.
- [6] 김재현 (2018). 4차산업혁명 혁신대학 키운다. Retrieved from: http://news1.kr/articles/article_print.php?article_id=3207067
- [7] 김진희, 이해원 (2016). 대학 Flipped Classroom 환경에서 교수실재감과 학습자-교수자 상호작용이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2(4), 733-753.
- [8] 김효수 (2015). 성찰 중심의 사회과 수업코칭에 관한 실험연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18, 25-39.
- [9] 박태정, 차현진 (2015).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의 교육적 활용가능성 탐색을 위한 교사 인식 조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8(1), 81-97.
- [10] 서미옥 (2016). 플립드 러닝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공학연구**, 32(4), 707-741.
- [11] 소경희 (2009).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27(1), 1-20.
- [12] 송창용 (2016). 플립드 러닝 적용을 위한 트리즈 분석과 공학수업에서 적용사례 연구. **지식경영연구**, 17(3), 207-225.
- [13] 신호식 (2015). 학습자 중심의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독어교육 모형. **독일언어문학**, 67, 87-107.
- [14] 오정숙 (2015). 플립드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경험과 인식. **한국교육문제연구**, 33(4), 1-23.
- [15] 이동순 (2017). 플립러닝 (Flipped Learning) 적용한 수업의 효과성.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1-45.
- [16] 이동엽 (2013).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 교수학습 설계모형 탐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12), 83-92.
- [17] 이민경 (2014).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의 효과와 의미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41(1), 87-116.
- [18] 이상수 (2010). 수행공학을 적용한 수업컨설팅 모형. **교육공학연구**, 26(4), 87-120.
- [19] 이상수 (2016). 지속적 수업개선을 위한 자기수업컨설팅 모형 탐색. **교육혁신연구**, 26, 17-42.
- [20] 이종미, 장경원 (2015). 교사 경험 반영 수업컨설팅 모형 개발. **한국교원교육연구**, 32(1), 251-278.
- [21] 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학습자 중심 플립드러닝 (Flipped Learning) 수업의 적용 사례. **교육공학연구**, 30(2), 163-191.
- [22] 이지은, 최정임, 장경원 (2017). 플립드 러닝 수업 컨설팅을 위한 수업분석 전략 탐색: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과목을 기반으로. **교육공학연구**, 33(1), 137-171.
- [23] 이은혜, 박인우 (2017). 수업코칭, 수업장학, 수업컨설팅에 대한 개념적 분석. **교육공학연구**, 33(1), 105-135.
- [24] 이혁규 (2014). 거꾸로 교실이 한국어 교육에 주는 시사점. **미간행논문**
- [25] 임정훈 (2016). 대학교육에서 플립러닝 (Flipped Learning) 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 탐색: 사례 연구. **교육공학연구**, 32(1), 165-199.
- [26] 임진혁 (2014). 무크와 플립드 러닝 기반의 미래교육 모델. **선진화 정책 시리즈**, 2017. 2., 210-221.
- [27] 정동섭 (2015). 교양 스페인어 수업의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 수업모형 제안-말하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북대학교 교양 스페인어 수업의 사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8(1), 127-150.
- [28] 정영란 (2014). 교수자의 성찰적 실천에 기반한 이러닝 수업컨설팅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0(2), 275-301.
- [29] 정현재 (2014). 플립러닝 성공전략-거꾸로 교실 활성화 방안. **한국U러닝연합회**, 서울: 콘텐츠미디어.
- [30] 조벽 (2012). 조벽 교수의 수업 컨설팅. 서울: 해냄 출판사.
- [31] 최옥 (2017). 거꾸로학습 (Flipped learning) 의 디딤수업을 위한 교수설계모형 개발 연구. **교육공학연구**, 33(1), 1-34.
- [32] 최정빈, 김은경 (2015). 공과대학의 Flipped

Learning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교과운영사례, **공학교육연구**, 18(2), 77-98.

- [33] 최정빈, 강승찬 (2016). 성공적인 Flipped Learning 을 위한 수업컨설팅 요소 및 절차 연구. **공학교육연구**, 19(2), 76-82.
- [34] 최정임 (2017). 대학에서 플립드 러닝 운영을 위한 지원 전략 탐색.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3(4), 657-682.
- [35] 한형종, 임철일, 한송이, 박진우 (2015). 대학 역전학습 온, 오프라인 연계 설계전략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31(1), 1-38.
- [36] 홍기철 (2016). 거꾸로 교실 (Flipped Classroom) 의 실행에 대한 비평적 분석. **교육방법연구**, 28, 125-149.
- [37] 홍성연 (2010). 대학 강의 개선을 위한 수업 컨설팅 사례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3), 97-127.
- [38] Bergmann, J., & Sams, A. (2012). Flip your classroom: Reach every student in every class every day.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 [39] Bergan, J. R., & Schnaps, A. (1983). A model for instructional consultation. *Training in consultation*, 104-119.
- [40] Erickson, G. R., & Erickson, B. L. (1979). Improving college teaching: An evaluation of a teaching consultation procedure.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0(5), 670-683.
- [41] Hicks, O. (1999).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structional consultation.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1999(79), 9-18.
- [42] Trottier, P. (2012). Approaches to Consultation: The Four Basic Models. Emergent Organizations- Emergent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Change (EODC)TM. Retrieved from: <https://globaltransforming.wordpress.com/2012/06/13/approaches-to-consultation-the-four-basic-models/>

김 은 희



2009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석사)
2017 충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2002~2006 KAIST 글로벌 e러닝센터 연구원

2006~2011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러닝지원부 팀장

2011~현재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스마트교육센터 사업 총괄

관심분야: 이러닝, 교수방법, 이러닝 플랫폼, 교수
매체, 학습분석, 대시보드

E-Mail: ehkim97@chungbuk.ac.kr

변 호 승



1989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학사)

1991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문학석사)

2000년 Indiana University Instructional
Systems Technology(교육공학 박사)

2001년 ~ 현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수방법, 디지털교과서, 이러닝, ICT
활용교육

E-Mail: hobbyun@chungbuk.ac.kr